



누가복음 16장 19-31절 · 부자와 나사로 · 9살 친구에게 전하는 그림 말씀

지금 이 하루가 하늘나라를 준비해요

차례

1. 오늘 읽을 말씀
2. 우리 몸과 우리 영
3. 세 곳에서 사는 사람
4. 부자와 나사로
5. 땅의 부자, 하늘의 부자
6.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7. 말씀을 들어요
8. 하늘나라는 우리 집이에요
9. 함께 기도해요
10. 함께 나눠요

오늘 읽을 말씀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0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얹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함께 외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요! 지금 이 하루가 하늘나라를 준비해요.」



들에 핀 꽃과 풀, 그 위로 비치는 하늘빛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몸(육)**과 **영**을 함께 가진 존재예요. 영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위한 밥만이 아니라, 영을 위한 밥,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성경은 사람의 몸이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꽃** 같다고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요.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약해져요. 몸은 옷과 같아서 언젠가 낡아 벗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 몸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도 잘 돌봐야 해요.



엄마 배 속 아기, 이 땅에서 자라는 아이, 그리고 빛나는 하늘나라

사람은 세 곳에서 살아요.

1. **엄마 배 속에서 열 달** — 세상에 나와 살 준비를 해요.
2. **이 땅에서 백 년쯤** — 하늘나라에서 살 준비를 해요.
3.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요.

엄마 배 속 열 달이 세상에서 살 준비였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늘나라는 **사랑의 법대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부잣집 대문 앞에 앉은 나사로와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부자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보랏빛 비싼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멋진 잔치를 벌였어요.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아픈 몸으로 누워 있었어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 했어요.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기까지 했어요.



천사들이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요

시간이 지나 나사로가 죽었어요.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괴로운 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부자는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생각해 봐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더 행복해 보였는데, 왜 하늘나라에서는 달라졌을까요?



가진 빵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는 아이

이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냐 가난하냐가 **하늘나라의 자리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과 하늘나라는 법칙이 달라요.

그렇다고 「모두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은 아니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 **가진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부자이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해지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 간다.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하늘에 보물이 쌓여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나눌 줄 모르고 혼자 배불리 살았어요. 사람들은 부러워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바로 친구에게 「미안해」 하고 손 내미는 아이

아브라함은 말했어요. 하늘나라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자리는 죽은 다음에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정해요.

나중에 「그때 잘할걸...」,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해도, 얹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쪽을 골라야 해요.

가장 피 많은 「내일 마귀」

마귀 가운데 가장 피가 많은 마귀는 「**내일 마귀**」래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살며시 다가와서 말해요. 「좋아, 그런데 내일 해.」 이 말에 넘어가면 때를 놓쳐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해」 하거든요.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돌아서요(회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펴고 읽는 아이와 반짝이는 열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 주세요. 제 형제 다섯이 이 괴로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신기한 기적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열쇠**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 있대요. 나사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목말라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사로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어요.

노을 진 길 끝에 빛나는 하늘나라 집

성경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진짜 고향(본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고 하지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다니러 온 **하늘 나그네**예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예요.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쁘고 힘차지요.

우리는 백 년쯤 되는 모래시계를 가지고 살아요. 성경은 「젊을 때에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아껴서, 한순간 한순간을 하늘에 남는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요!

함께 기도해요

덧붙임 — 원고에는 기도가 없어서 말씀에 맞춰 덧붙인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은 풀처럼 시들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배웠어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 부자처럼 혼자만 배부르게 살지 않고,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세요. 가진 것을 나누며 하늘에 보물을 쌓게 해 주세요. 「내일 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눠요

덧붙임 — 말씀 원문이 아닌 나눔 질문이에요

1. 사람이 사는 세 곳은 어디였지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2. 부자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3.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4. 「내일 해」 하고 미룬 적이 있나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5.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지요?

끝 ·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